전쟁기념사업회
나라를 지키는 포럼

제13회 KWO 나지포럼

일시 2026.1.30.(금) 14:00~16:00

장소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주제발표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종합토론

조현규 (신한대학교 교수)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서지영 (KBS 정치외교팀장)

포럼기획 전쟁기념사업회 W-아카데미
작성책임 서진아 학예연구사 (02-709-3174)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

제13회 KWO 나지포럼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제13회 KWO 나지포럼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일시 : 2026년 1월 30일(금) 14:00~16:00
장소 : 전쟁기념관 3F 워리어 라운지
주최 : 전쟁기념사업회

발표주제와 순서

구분	시간	내 용
등 록	13:30~14:00	등록 및 자료집 배부
개 회 식	14:00~14:10	개회사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주제발표	14:10~14:30	【좌 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 론】 김현욱 (세종연구소장)
종합토론	14:30~15:20	【좌 장】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 론】 조현규 (신학대학교 교수)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서지영 (KBS 정치외교팀장)
	15:20~15:30	【Q&A】 질의응답
기념촬영	15:30~15:40	기념촬영
리 셉 션	15:40~16:00	환 찬
폐 회	16:00	폐회선언

〈목 차〉

【주제발표】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 김현욱 ……7

【종합토론】

조현규 (신학대학교 교수) ……19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7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31
서지영 (KBS 정치외교팀장) ……33

다자토론 ……39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김 현 욱

(세종연구소장)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세종연구소장 김현욱

국가안보전략서

- 돈로주의 (Trump Corollary to the Monroe Doctrine):
- 서반구에 대한 미국의 우세
- 미국우선주의에 기반한 '고립적 팽창주의'
- 미국이익이 걸린 부분 예를 들어,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남중국해 등에는 강한 팽창의욕을 보였으나 미국의 불필요한 지출이 과다한 영역 예를 들어 중국때리기에서는 발을 빼는 모양새
- 미국국익은 글로벌패권에 있지 않다: 미국의 제조업기반 강화 및 중산층의 이익에 초점

국가안보전략서

- 유연한 현실주의: "미국과 다른 전통과 역사를 지닌 국가들에게 미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변화를 강요하지 않겠다" (국익에 기반한 거래외교)
- 아시아: Win the Economic Future, Prevent Military Confrontation
- 동맹국들에게 안보부담 전가: 제1도련선 안에서 집단적 방위 필요
- 장기적인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을 위한 토대를 마련: 미국의 첨단제조업에 투자해서 장기적인 중국과의 경제적 경쟁에 대비
- 중국의 대리국가를 통한 대미수출을 막겠다
- 과거 중국을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편입은 실패

국방전략서

- 미국본토와 서반구 방어
- 유연한 현실주의: 미국에 대한 위협에 우선적으로 집중하여 관리하겠다.
- 충돌이 아닌 힘을 통한 중국억제
- 세력균형, 신뢰할 억제를 통한 안정
- 제1도련선에서의 방어적 억제
- 일본, 한국, 필리핀 등의 회복력있고 분산된 전력태세 현대화 (collective defense)
- 주한미군 태세 업데이트하겠다.
- 중국과 억제력에 뒷받침된 평화
- 북한 미사일은 한국, 일본을 타격할 수 있고, 북한핵무기는 미국본토를 위협하고 있다.

베네수엘라

1) 글로벌 에너지 시장 컨트롤 목적
- 베네수엘라는 세계원유 매장량의 17%이나, 세계공급량은 1%에 불가.
- 중국의 전체 석유수입량의 4%에 불과
-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견제는 아니나 글로벌 에너지 컨트롤 위한 교두보

2) 중국의 중남미시장 교두보:
- 화웨이, ZTE는 베네수엘라 시장 장악
- 중국의 베네수엘라 채무대출 및 투자규모는 수백억 달러 규모
- 중국의 유전투자액 30억 달러, 기타 인프라 투자액 600억 달러 이상
- 대중국 200억 달러 규모 채무. 원유수출을 채무상환에 사용. 마두로 체포로 중국 채권회수 및 원유공급망에 차질

베네수엘라

3) 서반구에서 러시아, 중국 위협 제거
- 그린란드에 대한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 제거
- 베네수엘라는 중북러에 대한 군사적 경고임 (by military action on Venezuela)
-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있는 자국의 space ground station에 대한 access를 잃을까 우려.
- 베네수엘라의 쿠바에 대한 지원이 끊겨지면 중국과 쿠바와의 관계도 약화될 수 있다.
- 남미국가들에게 중국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가: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중국은 아무런 목소리나 액션을 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들 국가들에게 안보제공 못함.
- 베네수엘라는 대쿠바 석유, 자금 지원국가

그린란드, 이란

- 그린란드 1) 돈으로 매입 2) 국민투표 독립 + 합병 3) 무력
- 그린란드는:
- 북극권에 위치, 북대서양과 북극을 연결하는 해상로를 통제
- 미국의 MD용
- 피투픽 우주기지(구 툴레 공군기지): 현 150명 미군병력 상주
- 미 본토를 향한 러시아 핵미사일의 비행경로: 북극-그린란드-캐나다- 미국
- 희토류, 광물자원 풍부.
- IRGC(이슬람혁명수비대)와 이란정권을 무너뜨리고 핵시설을 파괴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통된 목적임
- 우크라이나전쟁 이후 트럼프는 global energy control을 통해 러시아를 통제하려 할 것임. 이란은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국가임.

중국의 대응

- 기술굴기, 내수확대 및 글로벌사우스 지역의 시장개척
- 2000조원 투입, 2025년 1분기 5.4% 성장률
- 대미 수출 비중을 2018년 19.2%에서 2024년 14.7%(간접수출, 대미투자 제외)
- 2020년도 쌍순환(2020년) 전략
- 국내 민간 소비를 확대, 수입 의존도 낮춰 독자적인 공급망을 구축
- 대외적으로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첨단·고부가가치 상품의 과잉생산수출확대
- 미중간 GDP격차는 지속적 확대, 중국 부채문제 지속
- 수요부족으로 디플레 현상 확산
- 트럼프 관세: 중국의 대미간접수출에 타격
- 수출 X, 수요 X, 투자 O
- 최근 유럽시장 확대추세: 독일, 스페인, 프랑스 등

중국의 대미전략

1) 반미국가들과의 연계강화
2) 글로벌 사우스국가들과 국제기구 통한 협력 강화
3) 독, 프, 사우디 등 미 동맹국들의 지지확보 노력

But,

1) 글로벌사우스 국가들, 미 동맹국들은 미중 양국으로부터 수혜를 원함
2)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경제지원 제한

- 2025년 SCO 20 billion yuan

대중정책

• 미 국방부는 무기체계에 희토류 필요 (안보취약성)

- 희토류의 mining(채굴)과 refining(정제)을 다른 국가 (예를 들어 말레이지아)에서 하려는 시도는 중국의 압박으로 쉽지 않은 상태

•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에 대한 정책과 액션은 대중국정책과 연계되어 있지 않음.

- 현 트럼프는 오일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contain하려는 의도가 없음

• 미국은 중국과 충돌하려 하지 않음

- 또한 트럼프는 Sphere of Influence를 추구하지 않음

2026 미중관계 전망

- 미중정상회담 이후 대중국정책이 나올 가능성

- 정상회담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막대한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중점을 둘 것임

- 중국때리기에 실패한 이후 단기적으로 트럼프는 중국과의 stability를 원함.

- 2026년은 미국 독립 250주년, 마이애미 G-20회의, 월드컵, 중간선거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트럼프는 국내경제안정을 위해 미중관계를 완화할 것

- 올해 하반기 선거철에 중국이 과도한 대미정책을 추진하거나 트럼프가 이에 분노할 경우, 또는 선거패배 이후 트럼프가 국내적 압박을 받게 될 경우, 트럼프는 공화 민주의 중국강경정책에 편입되고 대중강경정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음.

한미동맹

- 한미동맹 공고

- 대미투자 (2000억불+마스가1500억불+기업투자1500억불), 무기구매 250억불, 주한미군지원 330억불

- 2025년12월 미국주도 하에 팍스실리카 서밋

- 인공지능, 반도체, 에너지, 핵심광물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협력체인 팍스 실리카 서밋 회의 (미국+8개국)

- 한미동맹 현대화 진행

- 주한미군 병력 재구성

- 전략적 유연성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중관계

- 한국에게 중국의 전략적 가치는?
- 북한 비핵화?
- 안미경중? Market Sharing? Cheap Labor?
- 2023년 이후 한국의 대중 무역적자
-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생산의 중간재 및 원재료 대중국 의존도
- 22년 기준 반도체 34%, 배터리 72%, 의약품 34%
- 중국 중간재 생산공장 한국 내 건설
- 중국기술굴기로 인해 한국기업체들의 중간재수출

국제체제의 변화

1. 미국 공공재 약화 (미국우선주의)
- NSS, NDS: 책임과 비용 공유
- Private Goods Provided to US: 대미투자 증가, 관세 증가
- No Free US Nuclear Umbrella

2. 미국 단일체제 약화
-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 간 경쟁 강화
- 미국 동맹국들의 자강 움직임
- 미국 중심 동맹체제 약화 (NATO)

국제체제의 변화

3. LIO의 약화

- 미국패권 약화로 인한 LIO약화
- 국제법 및 규범의 약화
- 신기술산업 Rule Making 경쟁

종합토론

【토론자】

조현규 (신학대학교 교수)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서지영 (KBS 정치외교팀장)

【토론문】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조현규 (신한대학교 교수)

1. 마두로 체포의 對 중국 메시지와 미중 전략경쟁에 미치는 영향

마두로 체포에 대한 중국의 반응

○ 중국 외교부 대변인
- 미국의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것은 국제법과 베네수엘라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임.
- 미국이 다른 나라 정부를 전복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함.

○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 우리는 어느 한 국가가 국제경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금껏 생각하지 않았으며, 어느 한 국가가 국제 법관을 자처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하지 않음.

최근 중국-베네수엘라 관계

최근까지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최대 채권국. 중국과 베네수엘라는 1998년 차베스 집권 이후 급속히 가까워져서 경제(석유 중심), 정치, 군사 분야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양자 관계

2023년 양국 관계는 중국 외교 관계의 최고 단계에 해당하는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경제적 유대

- 중국은 베네수엘라의 2대 교역국(2025년 11월 기준 교역액 약 60억 달러)
- 특히 중국은 베네수엘라 원유의 최대 고객(일일 30~47만 배럴),
- 600억 달러 이상 대출(석유-대출 거래), 총투자 1000억 달러 규모
- 중국 국유기업이 베네수엘라 유전, 중국 민간기업도 2026년까지 하루 60,000 생산을 목표로 10억 달러 이상 투자를 계획하는 등 에너지 협력 중
- 양국은 석유 외에도 도로·항만·철도·발전소·IT·디지털 감시 시스템·통신·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일대일로 확장, 베네수엘라를 라틴아메리카 진출의 '거점 및 상징적 파트너'로 활용
-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갚아야 할 부채는 100억 달러 이상

○ 정치·외교 관계

- 반미 동맹 : 중국의 '전천후 파트너'로서 유엔 등에서 상호 지지.
- 중국은 마두로 체제 지지로 중국의 글로벌 사우스 영향력 확대.

○ 군사 및 기술

- 베네수엘라는 남미 내 중국산 군사 장비의 최대 구매국
- 중국은 베네수엘라 내에 2개의 위성 추적 기지를 건설, 운영권 보유
- 군사 교류를 통해 중국의 라틴아메리카 군사 존재 확대

마두로 체포가 중국-베네수엘라 관계에 미치는 영향

▲ 마두로는 차베스 시절부터 이어진 친중 노선을 계승한 핵심 파트너였고, 체포 되기 10시간 전에도 중국 특사(추샤오치[邱小琪])와 회동하며 양국 전략적 동맹을 재확인했음

▲ 중국 입장에서는 가장 공을 들인 라틴의 정권이 미국에 의해 군사력으로 제거된 사건으로서, 베네수엘라에게는 중국이 보장해줄 수 있다고 암묵적으로 신호했던 정치적 안전망이 사실상 무력화되었음

▲ 향후 누가 베네수엘라를 통치하더라도 미국의 영향력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중국-베네수엘라 관계는 예전과 같은 수준으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전망됨

▲ 특히 베네수엘라의 약 100억 달러 이상의 대중(對中) 채무 상환, 장기 석유 -담보 계약, 위안화 결제 실험 등이 새로운 정권 및 미국의 재구조화 압력 하에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 중국은 경제·전략 두 측면 모두에서 손실이 예상됨.

마두로 체포가 중국에게 주는 메시지

○ 트럼프 보완원칙(Trump Corollary) 현시, 서반구 내 중국 영향력 차단

- 이번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은 단지 마두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코롤러리(Trump Corollary)의 진지함을 보여준 것임. 그 메시지는 명확함. 즉, "서반구 내 영향력은 미국의 전략적 우선권이며, 중국이 장기간 공을 들인 정권이라도 미국의 안보·범죄·자원 이익과 충돌하면 군사력·첩보·법 집행을 총동원해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임. 중국과 러시아 등 외부 세력의 남미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겠는 신호임. 나아가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반미 동맹(베네수엘라·쿠바 등) 견제

○ 중국의 자원·경제적 이익에 대한 억제

- 미국은 마두로 정권 붕괴 이후 베네수엘라의 원유 수출 시스템을 통제하며, 중국이 할인된 가격으로 저가 원유를 대량 수입하던 구조를 해체했음. 대신 중국이 정당한 시장 가격에서

석유를 구매하도록 제한적 허용하는 조치를 발표. 이는 단순히 경제적 조치가 아니라 중국의 전략적 자원 확보 경로를 제약하는 조치임

- 또한 중국 경제외교의 한계가 노출되었음. 즉, 중국에게 "단순한 자금·인프라 제공만으로는 미국의 군사·정보력과 충돌하는 정권을 지켜낼 수 없다."는 현실을 각인시킴

ㅇ 자원·기술 공급망 경쟁에서의 경고

- 미국은 베네수엘라의 석유·전략 광물·희토류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음. 이는 중국이 수출통제·자원 카드를 통해 미중 경제전쟁에서 활용해온 레버리지의 약화를 노린 것임. 미국은 중국이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던 일부 자원 공급망조차, 미국이 정치·군사적으로 환경을 재구성하면 탈중국화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시연

ㅇ 채무·금융 구조를 통한 영향력 경쟁

- 베네수엘라의 외채 재조정 과정에서 미국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중국의 대규모 채권 위치가 불확실해졌음. 이는 미국이 채권자 지위를 활용해 중국의 금융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ㅇ 대만 문제 관련

-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정밀 타격 및 특수전 능력이 대만 유사시 중국 고위층이나 핵심 시설을 겨냥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 조성
- 그러나"미국도 무력으로 외국 정상을 체포하는데, 중국이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대만에서 유사한 방식을 쓰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중국 내 강경 대응의 명분을 주는 측면도 있음.

ㅇ 규범적·국제법적 경쟁

- 미국은 이번 사안에서 '반(反) 마약, 규범과 법의 집행'등 정의 기반의 명분을 부각했는데, 중국 측은 이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주권·국제법 준수를 내세웠음.
- 중국은 향후 유엔·국제사회에서 법적·규범적 논리로 대응할 것으로 보임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 미치는 영향

○ 라틴아메리카 내 경쟁 전선의 재정렬 및 전략경쟁 전선 확대

- 마두로 체포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미중 경쟁의 균형을 미국 쪽으로 급격히 기울게 만든 사건임. 중국은 가장 상징적인 파트너를 잃고, 다른 친중 정권들도 미국의 군사·제재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되었음
- 동시에, 미국의 공세적 행동이 지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할 여지도 있으나, 단기 균형은 분명히 미국 우위로 재편되었음
- 이번 사건으로 미·중 경쟁이 인도·태평양 중심을 넘어 서반구까지 확대되고, 특히 에너지·금융·정치적 영향력 분야에서 전략경쟁이 전방위로 전개될 가능성 점증

○ 제3국에 대한 '위험 신호'와 '냉각 효과'발휘

- 마두로의 운명을 본 소·중견국들이, 중국과 전략적으로 지나치게 밀착했다가 미국의 직·간접 제재·정권교체 표적이 되는 것을 더욱 경계하게 될 것임
- 특히 일대일로·디지털 실크로드 등에서, 미국의 이해와 정면충돌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던 국가들이'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면 미국의 군사·제재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의식하게 되면서, 중국과의 협력 스케일·속도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음

○ 중국의 대응 옵션과 전략조정 예상

- 중국이 단기적으로는 '공식적 강경 비난''현실적 손실 최소화(채무·투자 회수 협상, 새로운 정권과의 조용한 관계 재설정)'라는 조합을 택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중장기적으로는 라틴아메리카에서'반미색이 짙은 단일 정권'에 올인하는 방식을 줄이고, 파트너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해외 에너지·자원 투자를 보다 분산하고, 필요시 군사·안보 협력(기지·훈련·장비 지원 등)을 일정 부분 보강하는 등 '정권 리스크 관리'와 '하드파워 요소'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시그널 발산

- 마두로 체포는 미국이 중국에게 보낸 일종의 시그널링 단계로서, 미중간 직접적 군사충돌이

아닌 지역·대리전 공간에서의 강력한 행동을 통해 중국의 의도를 조정하려는 시도임

-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실제로 군사력을 사용해서 자국 규범·이익을 관철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건"으로, 향후 대만·남중국해·중동·아프리카 등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옵션을 평가할 때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임

ㅇ 규범·국제 질서 경쟁 지속

- 미국과 중국은 이번 사건을 통해 국제규범 해석과 적용에서 경쟁적 프레임을 전개하고 있음. 미국은 법 집행과 테러·마약과의 전쟁을 앞세우며 명분을 강조하는 반면, 중국은 주권과 비간섭 원칙을 강조하며 국제사회 여론전을 시도하고 있음.

2. 트럼프의 對 베네수엘라·그린란드 정책과 對 중국 정책의 연계성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와 그린란드 매입 재추진은 미국의 단순한 지역 정책을 넘어, 대중국 봉쇄 전략(Containment Strategy)의 일환

미국의 대중 정책과 연결되는 세 가지 측면

① 자원 공급망의 '탈중국화' (Decoupling)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는 모두 중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에너지 및 핵심 광물의 보고임.

ㅇ 그린란드 (희토류 및 북극 항로)

중국은 2018년 북극 정책 백서를 통해 스스로를 '북극 근접 국가'(Near-Arctic State)'로 자처하고 북극 권익을 주장하면서, 그린란드의 희토류 광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음.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시도와 경제 원조는 첨단 무기 및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독점 체제를 구축하려는 전략임

ㅇ 베네수엘라 (에너지 패권)

중국은 지난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어 석유 자원을 확보해 왔음. 마두

로를 제거하고 친미 정권을 세우려는 시도는 중국의 에너지 안보라인을 끊어버리고, 미국이 글로벌 유가를 완벽히 통제하여 중국의 수입 비용을 높이려는 경제적 압박 수단임

② 미국의 '뒷마당'에서 중국 영향력 축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일대일로'가 미 대륙까지 뻗어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음

○ 세력권 재확립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작전은 중남미 국가들에게 "중국의 돈보다는 미국의 힘이 더 가깝고 강력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본보기임. 중국과 밀착했던 니카라과, 쿠바 등 주변국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이자, 중남미 내 중국의 정치·군사적 거점을 축출하려는 조치임

○ 지정학적 포위

북쪽의 그린란드(북극)와 남쪽의 베네수엘라(남미)에서 동시에 중국을 밀어냄으로써,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한 '안보 방어벽'을 재건하고 중국의 활동 범위를 아시아 인근으로 국한하고자 함

③'힘을 통한 평화'와 대만 문제에 대한 심리전

전격적인 마두로 체포 작전은 중국 지도부에 직접적인 심리적 타격을 주었을 것임

○ 실행력의 증명

"미국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만 해협 유사시 미군이 중국 지도부나 핵심 시설에 대해 어떤 극단적인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는 공포를 심어주었음

○ 중국식 안보 우산의 무력화

중국과 '전천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던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의해 끌려가는 모습은, 중국의 안보 약속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 준 결과임

베네수엘라·그린란드 두 사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대중 메시지

○ 베네수엘라에서는 “중국이 20년간 구축한 영향권도 미국의 군사·정보력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을, 그린란드에서는 “중국이 노리는 북극·희토류 접근을 미국이 동맹과 함께 제도·투자·군사 수단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시연

○ 두 사안 모두 “중국이 경제·외교로 확대해 온 영향력 공간(라틴·북극)을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재규정하고, 필요하면 동맹과 갈등을 감수해서라도 물리적으로 되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

○ 트럼프의 의중은 서반구에서는 중국의 정치·군사적 입지를 봉쇄하고, 북극·희토류에서는 중국의 공급망·항로 옵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입체형 견제’로 볼 수 있음

○ 중국 입장에서 베네수엘라는 “중국이 만든 영향권의 취약성”을, 그린란드는 “중국이 강점을 가진 자원·공급망에서 미국이 반격할 수 있는 지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이기 때문에, 향후 중국의 대미 전략, 해외투자, 군사 및 외교 정책 조정에 중요한 참고가 될 것임.

【토론문】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신범철 (세종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현욱 소장의 발표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미국의 대외전략을 잘 짚어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설명하되, 문제를 국방정책에 포커스를 맞추고자 한다. 이에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몇 가지 짚어보기로 한다.

1. '확고한 결의 작전(operation absolute resolve)'은 미국의 차원이 다른 신속하고 완벽한 군사작전 운용 능력을 보여주었고, 미주대륙에서 미국의 압도적 우위를 증명했다.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힘을 통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미국의 대외 전략 전반을 고려하면, 미국은 미주대륙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려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고립주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가장 최근에 발간된 미국의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국방전략은 우리 안보에 커다란 부담을 가지고 올 전망이다.

2. 미국 국방전략의 내용을 보면 위협 인식과 관련하여 본토 방어를 중시하고, 북한의 우선순위가 낮아졌음을 볼 수 있다. 동시에 전략 과제의 내용을 보면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며, 지역적 차원의 위협에 대한 우선적 책임을 부과하려 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의 국방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 첫째, 국방비 증액이다. 미국은 NATO 방식의 2035년 GDP 5% (핵심 군사 3.5% + 안보 관련 1.5%) 강조하고 있다. 다행히 우리는 작년 11월 발간된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의

GDP 3.5% 국방비 이행이면 충분하다. 다만, 그 안에 담긴 250억 달러 미국 무기 구매, 330억 달러 주한미군 주둔 지원 문제 제기 가능성에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 둘째, 대북 협상이다. 북핵 문제의 우선순위 하향화 및 북핵 관리 가능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북핵 억제를 위한 주도적 노력 외에도 미국의 유연한 현실주의를 활용하며 대미 공조를 통해 북한과의 대화 경로 개척에 활용해야 한다.
- 셋째, 대북 억제력 보강 필요성이다. 미국은 동맹국이 자국 방어의 중심이 되고, 결정적이되 더욱 제한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북한 재래식 위협의 일차적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군사 역량 건설 필요성이 제기되며, 특히 AI, 사이버, 우주, 그리고 드론 역량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이다.
- 넷째, 확장억제를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국방전략에서 확장억제 개념이 사라지고, '결정적이지만 더욱 제한적인 지원'으로 대체되었다. 이때 '결정적 지원'이 핵 억제를 의미한다 해도, 기존 확장억제에서 함께 제공되는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따라서 확장억제 공약의 지속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NCG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전략적 유연성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미국 국방전략에 나오는 위협의 동시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예상된다. 앞으로 미군은 북한 위협과 중국 위협 동시 대비를 위해 한국에 대한 전략적 유연성 요구를 강도 높게 제기할 전망이다. 동시에 작년 11월 정상회담 공동 팩트 시트의 합의대로 후속 논의 및 상부 보고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러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북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대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 여섯째, 주한미군 변화이다. 미국은 위협의 동시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 전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는 국방전략에서 한반도에서의 '미군 전력 태세를 현대화하려는 미국의 이익'으로 표현되었다. 현재 주한미군 전력은 육군 중심인데, 향후 해·공·우주·사이버 등 다영역 작전 수행 체제로 개편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공조로 북한 위협 대비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그 밖에도 한미간 방산 협력을 강화하며, 대미 방산 수출의 활로를 개척해야 하고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어들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 특히 미국 국방전략은 지난번에 다루었던 AUKUS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 즉, 호주측에 대한 핵잠수함 제공에 관심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에 대해 침묵하는 것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 따라서 조기에 협의체 구성해서 특별 협정 체결과 미 의회 통과가 필요할 것이다.

【토론문】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베네수엘라, 그린란드...최근 미국의 대외정책과 국제정치학적 함의—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북한학 박사)

1. 2025년 말부터 2026년 초반으로 이어진 미국의 대외정책 행보의 가장 큰 특징은 미주 **지역 패권**(regional hegemon)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했다는 데 있음.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서(NSS)에서 미국이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과제라고 언급. 이어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그린란드로의 영토확장 등의 시도가 이어졌음. 미국은 건국 이후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패권을 추구해 왔으며 이는 먼로 독트린으로 정식화되었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침없는 서반구 정책행보를 '돈로 독트린(Donroe Doctrine)'이라고 하는 이유임.

2. 공격적 현실주의자인 존 미어샤이머 시카고대 교수에 따르면 지역 패권 국가는 궁극적으로 세계 패권 국가를 추구하게 됨. 하지만 대양을 넘어 군사력을 투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역외균형**(off-shore balancing) **전략**을 추구하게 됨. 니콜라스 존 스파이크먼 예일대 교수에서 시작해 미어샤이머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이 이론은 미국이 지역 패권 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글로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유럽과 아시아에 경쟁적인 지역 패권 국가가 등장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해 왔음.

3. '역외균형' 이론은 미국은 아시아와 유럽의 동맹국들이 우선 잠재적 지역 패권국의 부상을 막도록 하며 이것이 실패할 경우 바다를 건너 개입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를 내포. 이에 따라 미국 내 자제론자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글로벌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 개입을 비

판해 왔음.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NSS에 이어 1월 발표한 국가방위전략(NDS)에서도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들에 자국 안보 부담 증대를 재차 강조한 것은 중국의 부상 등 잠재적인 지역 패권국가의 부상을 막는데 동맹국의 역할을 더 이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됨.

4. 미주 지역 패권 국가로서의 정체성 강화와 역외균형 전략의 심화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논쟁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 첫째,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 등 주권 국가에 대한 적나라한 힘의 투사 현상임. 둘째, 전후 미국이 주도해 만든 유엔이 구축한 주권의 존중과 침략 전쟁의 불허 등 2차 세계대전 후 미국이 만든 기존 국제질서와 규범을 스스로 위반하는 현상임. 셋째, 이 과정에서 아시아의 한국과 일본, 유럽의 EU 제국에 대한 부담과 불만을 키워 미국의 글로벌 동맹체제에 이완을 가져오는 현상임.

5.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후퇴하여 중국과 **세력균형**(Balance of Power)을 이루겠다는 방침을 밝혀 한국과 일본 대만 등 중국 주변국들의 안보 우려를 키우고 있으며 각국의 자강 노력은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됨.

【토론문】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고립적 팽창주의'에 따른 안보의 상업화—

서지영 (KBS 정치외교팀장)

1. 미국의 전략 기조 변화

- 고립적 팽창주의(Isolationist Expansionism)는 미국의 새로운 국가안보전략임. 단순한 고립주의가 아니라 국익과 직결된 요충지에 집중적인 힘을 쏟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과감히 철수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의미함.
- 지정학적 거점 확보: 그린란드는 북극권 항로 통제 및 미 본토 방어를 위한 미사일 방어(MD) 기지로, 베네수엘라는 에너지 자원 확보와 중국의 남미 영향력 차단을 위한 핵심 기지로 재정의됨.
- 가치 동맹의 종말: 과거의 가치 중심 동맹은 '거래 중심 외교'로 전환됨. 제1도련선 내 방위 책임을 한국과 일본에 전가하고, 주한미군의 성격을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따라 언제든 변경가능한 '유연 자산'으로 취급하기 시작함.
- 고립적 팽창주의의 극단적인 형태는 국제법과 규범보다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시그널을 전 세계에 줄 수 있음. 앞으로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자강'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2. 안보 유료화, 그리고 구독 해지의 공포

미국의 새로운 전략은 '책임과 비용 공유'로 압축됨. 이는 동맹을 가치 공동체가 아닌 이른

바 '안보 유료 구독 서비스 국가'로 보는 것임.

만약 구독료(방위비, 대미 투자)를 내지 않는다면 미국은 언제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동맹국들에 각자도생을 강요함. 이는 한국 내에서도 독자적 핵무장론이 단순한 주장을 넘어 생존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고 있음.

3. 2026 신국제질서의 핵심: 키네틱 외교의 부활

과거 미국이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를 내세웠다면, 베네수엘라 사례를 통해 드러난 미국의 기조는 단순히 정권을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음. 미국이 직접 치안과 행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그 비용을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통해 회수하려는 의지를 밝힘.[1]

- 자원 약탈적 개입: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생포 작전에서 드러나듯, 미국은 이제 정권 교체를 넘어 직접적인 치안과 행정 관리에 개입하는 단계임. 아울러 그 비용은 해당국의 자원을 통해 회수하는 이른바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함.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미국 통제하에 두어 유가를 안정시키는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MAGA)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보임.
- 탄화수소법 개정과 자원 통제: 베네수엘라 국회가 20년 만에 석유 국유화 조처를 폐기하는 '탄화수소법 개정안'을 통과시킴(26.01.29). 이에 따라 민간 기업에 유전 운영권을 부여하고 국제 재판소 분쟁 해결까지 허용함으로써 사실상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자원을 통제할 법적 기반을 마련.
- 베네수엘라의 자원 통제권 확보에 이어, 이란 지도부와 핵시설에 대한 '선제적 방어' 차원의 공습 검토는 미국의 기조가 키네틱 외교로 전환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 실제로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베네수엘라와 마찬가지로 이란 지도부에 대한 참수 작전 가능성을 언급.
- 이러한 물리적 압박과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행태는 비단 남의 나라 이야기만은 아님. 우리의 국익이 미국의 우선순위와 충돌할 때, 미국은 언제든 경제적,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

1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CSIS), The Rise of Kinetic Diplomacy: Lessons from the 2025 Venezuela Intervention, 2025.

다는 시그널로 해석해야 함. 베네수엘라 사태는 힘을 통한 정권 교체가 어떻게 경제적 패권으로 직결되는지를 보여 주는 사례였던 만큼, 우리나라도 '키네틱 외교'의 실체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참고] 키네틱 외교: 외교의 수단으로 경제 제재나 협상 대신 군사적 타격, 특수 작전 등 실전적 힘을 전면에 내세우는 강권적 외교 방식

4. 팍스 실리카(Pax Silica)와 '투자 인질' 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에너지망을 장악하고 실리카(반도체/AI) 중심의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근본적인 동력은 내부 정치적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임.

- 정치적 데드크로스(Dead Cross): 에머슨 대학교의 최신 조사(2026.1.22.)에 따르면,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48%)이 공화당(42%)을 6% p 차로 앞서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0%대 중반에 갇힌 '데드크로스' 현상이 뚜렷함. 특히 유권자의 56%가 미국의 현재 방향에 회의적이라는 점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적 팽창주의'가 내부적 저항에 직면했음을 시사.[2]
- 지지층 결집을 위해 트럼프는 '먼로 독트린'을 변용한 '돈로 독트린'을 내세우며, 베네수엘라 원유를 확보해 국제 유가를 배럴당 50달러 선으로 억제하려는 구상을 구체화함. 다만 미 재무부가 북한, 러시아, 이란, 중국 자 본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엄격히 제한한 것은 '팍스 실리카' 체제 내에서 미 중심의 공급망에 편입되지 않은 국가는 철저히 배제하려는 의도로 보임.
- 한국이 약속한 5,000억 달러(약 725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도 자국 일자리 창출의 전유물로 홍보하고 있음.
- 이미 천문학적인 자산과 설비가 미 본토에 묶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제 미국이 관세 정책을 급변시키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해도 발을 뺄 수 없는 인질 상태에 놓이게 된 셈임.

[참고] 팍스 실리카: 반도체와 AI 패권을 장악한 국가가 세계 질서를 주도하는 시대

2 Emerson College Polling, "January 2026 National Poll: Voter Sentiment on U.S. Direction and 2026 Midterm Preferences," released January 22, 2026. (Sample: 1,200 Registered Voters, MoE: ±2.8%); https://emersoncollegepolling.com/january-2026-national-poll/

5. 대응 방안: 안보 자산 다변화와 상호 의존성 강조

- 우리 기업 투자와 미국 내 공급망 핵심 기술의 직결성을 역이용해야 함.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 '루빈'에 필수적인 HBM4 공급망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80%에 달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생산 물량은 이미 매진 (Sold out) 상태이며 가격 결정권 역시 공급자에게 넘어온 상황임.[3]
- 만일 미국이 우리에게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이는 미 AI 기업들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또한 삼성 테일러 공장에서 양산될 테슬라의 AI5/AI6 자율주행 칩은 핵심 자산인 만큼, 이 부분을 전략적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 대행은 미국 주도로 판매된 원유 대금 5억 달러 가운데 첫 번째 지급금인 3억 달러를 확보했다고 발표. 이는 베네수엘라의 원유 재고를 시장에 매각해 얻은 첫 번째 수익으로 미국이 통제 가능한 현금이 발생. 이는 채권자인 우리 기업들도 압류나 지불 요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생겼음을 의미. (현대건설 2020년 베네수엘라 정유 공장 공사 미수금 630억 원, GS 건설 미수금 수백억 원)
- 핵잠수함 도입 추진과 정밀 타격 능력 고도화 등 독자적 억제 수단 확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춰야 함.

6. 결론

- 북한은 핵 억제 전략을 최적화하면서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굳히는 과정에 있음. 미국은 핵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음.
- NSS와 NDS에서도 명시했듯이 '1차 대북 억지'를 한국이 맡게 된 시대 임. 북한이 보유한 실질적 보복 능력이 한미 동맹의 능력을 상회하거나 미국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 미국의 핵우산은 '신뢰성 상실' 현상을 겪게 될 것임.
- 트럼프 2기의 안보-경제 연계 기조는 더욱 심화할 것임. 동맹의 성격이 가치 동맹에서 전략

3 TrendForce, 2026 Global HBM Market Outlook: The Dominance of Korean Manufacturers in HBM4 Supply Chain, 2026.01.

적 거래 관계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무기 구매는 단순히 비용 지불이 아닌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이나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협상 칩'으로 정교하게 활용되어야 함.

결국 한반도 안보는 이제 미국의 선의나 동맹의 가치에 비중을 두기보다, 최적화된 자강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역(逆) 레버리지'를 적극 활용하여 생존 전략을 모색해야 함.

【다자토론】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사회 :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토론 : **김현욱** 세종문제연구소장
조현규 신학대학교 교수
신범철 세종문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신석호 동아닷컴 대표이사 전무
서지영 KBS 정치외교팀장

▣ **백승주 회장** : 김현욱 소장님께서 짧은 시간에 많은 주제를 다루어주셨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베네수엘라 사태 났을 때 국민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이 김정은은 걱정도 안 될까,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2시간 15분 만에 나라를 초토화하고, 지도자를 끌고 갔는데 저것을 김정은 체제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을 기존 발표 토론 준비에 보태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범철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 **신범철 수석연구위원** : 김현욱 소장님, 최근에 제가 국제 정세 발표 들어본 것 중에 가장 간결하면서도 폭넓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북한은 미국의 군사력에 대해서 놀랐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데다가 피해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정말로 그 기획 단계부터 이행 과정을 보면, 미국이 왜 초강대국이고 군사력과 관련해서는 2등을 우리가 러시아로 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러시아하고도 엄청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진짜 요즘 말로 넘사벽, 이게 요즘 말로는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느껴질 정도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김정은이 두려워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그렇다고 해서 김정은이 계속 불안에 떨지는 않을 것이다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오퍼레이션 앱솔루트 리졸브(확고한 결의, Operation Absolute Resolve)를 보시면 사실은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항공모함이 있었고, 거기서부터 작

전을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을 우리가 만약에 베네수엘라처럼 체포 작전을 한다고 하면 서해에 그것이 와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서해는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국방한계선이죠. 이북으로 미국 항공모함이 전개하는 상황이 사실상 어렵다. 동해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도 고려할 때, 이렇게 베네수엘라처럼 작전하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도 그것은 알 것입니다. 두 번째 북한에는 이제 핵무기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검증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지만 아무튼 그 능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핵에 볼모로 잡혀 있고 북한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함부로 작전하지 않을 것이다고 이렇게 생각해서 김정은이 불안에 떨기까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김현욱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계 질서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면 두 가지가 확인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두 번째 미국의 무력 사용의 방식이라는 거죠. 이제 미국은 과거 이라크전과 같이 지상군을 대규모 파견해서 장기간 작전하면서 엄청난 인명피해를 보는 그런 작전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방식으로 앞서 김현욱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국제질서의 재편과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우리의 동맹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제가 설명하면, 한 9가지 포인트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짚어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미국의 신고립주의, 돈로주의 그리고 선택적 개입주의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전략과 미국의 국방 전략, 미국 안보 전력이 모든 것이 지금 다 나온 상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동맹국의 부담을 늘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국방비 증액인 거죠. 이미 작년 11월에 우리는 3.5%의 국방비 증액을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 나토의 경우에는 2035년까지로 명시했는데 우리는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추가로 보다 빠른 기간에 올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미국 무기 구매를 250억 달러 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의 지원되는 금액을 330억 달러라는 금액을 명시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관심을 둬야 합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 체계 250억 달러를 구매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은 우리의 방산 능력과 또 우리 방위산

업체를 또 보호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무기 체계의 우선순위를 해서 대북 억제의 효율적인 무기 체계를 설계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이슈는 내부 협상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방 전략을 보면 유연한 현실주의라고 하면서 대중국 정책을 압박하면서도 대화하겠다 하는 메시지를 줍니다. 이것을 북한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역량을 갖추면서도 대화의 기회를 엿볼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4월에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이후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한미 공조를 해나갈 것인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북 억제력입니다. 대북 억제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은 동맹국에 '우선적인 책임'을 부여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이냐면 북한 위협 억제를 한국이 일차적으로 해야 하고 그 역량을 갖추라고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슈인 확장 억제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사실 이전에 미국의 국방 전략에는 확장 억제 부분이 항상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확장 억제는 무엇입니까? 핵우산, 첨단 재래식 전력, 미사일 방어 이 세 가지인데 지금 미국이 동맹국에게 확장 억제를 강조하지 않고 제한적인 지원만을 한다고 말하는 것은 확장 억제에서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사일 방어가 앞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인식하고 확장 억제 협력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다섯 번째는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미국 국방 전략을 보면 위협의 동시성 문제라는 것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동시성이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정부에서 적들이 협력해서 공격을 해올 수 있다는 가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아시아로 좀 더 확장해 보면 타이완 정부와 한반도 정부가 동시적으로 이렇게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하냐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요구가 앞으로 더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잘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주한미군의 변화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과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 국방 전략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현대화 업데이트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역량 강화 부분이 나오는데 따라서 그 과정에서 지상군 중심에서 공군이나 우주 전력 이런 것들로 주한미군이 재편되는데 지금 한반도에서 중요한 건 사실 지상전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우리가 약

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게 한국에게 제공하는 미국의 지원은 크리티컬(critical)한 것을 하겠다는 건데 그 내용은 정보 공유라든가 전략 자산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더 제한적인 지원만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것이, 한반도 전면전이 발발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전시 증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우리에게 무슨 과제를 시사하냐면 우리가 예비 전력 부분에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문제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방산 협력 부분입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는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여덟 번째 방산 협력은 우리가 미국과 방산 협력하기에 좋은 기반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그런데 미국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미국 본토에서 생산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의 군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진출해야 되고 그것을 가급적 우리 한국에 있는 울산이나 거제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협력을 해나가서 미국 방산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아홉 번째가 우리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나온 국방 전략을 보니까 2022년하고 가장 비교되는 것이, 2021년에는 미국의 핵잠수함을 호주에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는데 그것도 빠졌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도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관심을 안 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미국에 상당히 투자하면서 핵추진 잠수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동맹과 관련해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제가 토론이 좀 길어졌지만 중요한 이야기 같아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백승주 회장** : 예, 감사합니다. 서지영 박사님, 남북관계 변화에 굉장히 관심 많으신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서지영 기자** : 안녕하세요. KBS 정치외교팀장을 맡고 있는 서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 발제 자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가치 동맹은 종말의 시대를 맞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제는 거래 중심 외교로 변환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의 고립적인 팽창주의는 국제법이나 또 법원보다는 미국의 이익이 우선이라는 시그널을 전 세계에 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맹국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자강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나가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혹시 챗GPT(ChatGPT) 본인만의 클래식 AI 다 쓰시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료 버전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0달러를 내면 훨씬 더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보의 유료화, 구독 중심의 이런 외교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돈을 많이 내면 될수록 이만한 서비스를 미국에서 준다, 이런 취지입니다. 우리가 안보 유료 구독 서비스 국가가 되는 셈인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구독료, 여기서 쉽게 비유를 한번 해봅시다. 방위비나 대미 투자 이것이 이제 구독료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구독료를 내지 않거나 아니면 이 구독료를 최소화한다면은 이 유료 서비스의 기능에 저하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맹국들이 각자 고생을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국방부 출입을 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前 대통령 시기였고 원유철 원내대표님이 원내대표 연설을 하면서 굉장히 한국사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핵무장이 무슨 말이냐, 그런 여론이 굉장히 강했는데 12년이 지난 지금은 그때보다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핵무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핵무장까지 할 수 없더라도 우리가 핵 능력을 갖출 정도의 수준을 갖춰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구독 해지에 대한 이 불안감이 생기게 됩니다.

과거에 이제 민주주의 확산을 기도했던 미국이 자유주의적인 독재 질서를 내세우면서, 이번에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시면 미국이 정권 교체해서 우리가 직접 치안이라든지 행정 관리하는 것은 물론 석유 통제권과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져올 것이라고 이런 의지를 밝힌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 작전을 보셨지만, 이제는 쿠바, 이란까지 갑니다. 이란의 참수 작전이라는 표현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 우선주의를 공고히 하려는 그런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 민간기업의 유전 운영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 에너지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의 소비 자원을 통제할 수 있는 기반을 주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자원 통제권을 확보했고 여기서 이제 이란 지도부와 핵시설에 대한 신체적 방어까지, 이렇게 미국이 하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리적 압박을 준다든지 복지, 규범을 도외시하는 태도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적 우려는 하지 않겠지만, 경제적 압박이나 다

른 통제 수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압력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지난 13일, 미국 대사관이 우리나라 산업통상부 장관 이하 여러 장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거기서 쿠팡에 대한 이제 차별을 철폐하라는 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별법을 빨리 법안 처리하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압박을 해 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팍스 실리카(Pax Silica)라고 하는, 반도체랑 AI를 붙여서 실리카 중심으로 체제를 공고히 하려는 근본적인 동력은, 사실상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매우 정치적인 위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앨버스톤 대학교의 최신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1월 22일에 실시된 여론조사입니다. 민주당이 48%, 그리고 공화당이 42%였습니다. 6% 차이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얼마나 나왔을까요? 30%에서 36%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것은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권자의 56%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미국 현재 외교 방향에 대해서 회의적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팽창주의가 내부적인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중간 선거의 그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아까 소장님께서 언급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생략할 것이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앞으로 대응 방안을 어떻게 가야 하느냐?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안보 자산의 다변화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상호 의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혹시 삼성전자 주식 갖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요? 예, 계속 갖고 계십시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임원하고 저녁에 술 마실 기회가 있었는데 '이거 계속 갖고 있어요? 팔아요?' 했더니 이분이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가지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판교의 호텔들이 많습니다. 이 호텔에 미국의 기업, 그 임원들이 여기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아예 호텔을 장기적으로 투숙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관련 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이 반도체 칩, HBM 4 공급망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차지하는지 아십니까? 80%입니다. 지금 차지하고 이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야 한다 라는 겁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될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공급망에 있어서 주도적인 우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 공급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AI 공급망 체계로 엮여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압박만 받고 주도권 싸움에 밀릴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제 핵심은 바

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자원망 그다음에, 안보의 다각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가 공동체라는 점을 오히려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또 MSS나 MD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대북 억지가 한국과 일본이 맡게 된 그런 시대를 살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님도 먼저 물어보셨지만, 실질적인 보복 능력이 한미동맹을 상회하거나 또 메뉴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경우에 미국의 핵우산이 신뢰성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 주한미군 분담금이나 무기 구매를 단순히 비용 지불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첨단 기술 이전이나 국제적인 억제 역할을 전략적 협상 시 우리나라가 정교하게 활용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안보 같은 경우는 미국의 선의나 가치에 기대하지 말고요. 최적화된 자강력을 확보하는, 레버리지 현상을 적극 활용해서 생존 전략을 더욱더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서지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중에 원유철 의원님 말씀은, 제가 그 당시에 국방부국방산하기구인 국방연구원에서 실장할 때 생각납니다. 그때 저를 갑자기 불렀습니다. 물어보길, '백실장, 내가 핵무기를 보유하자는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질문해서 제가 평위원이면 괜찮은데 국방위원장이 핵무기 가지자고 하면 조금 여러 가지로 복잡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라고 말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말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지영 박사님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질서를 만들어가자 이런 주장인데 거기에도 제가 깊은 공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조현규 박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조현규 박사님, 베네수엘라 사태 보면서 '중국,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중국은 종이호랑이 아니냐, 아직 미국에 꼼짝 못한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현규 교수** : 중국을 믿었던 여러 국가가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원래 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 중국이 손을 쓸 수 없었던 사태에 대하여 국내적인 정치적 상황 때문에 지금은 앞으로 당분간은, 이런 대외 업무에는 중국이 굉장히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하여, 베네수엘라가 가지고 있는 중국의 무기, 혹은 중

국이나 러시아의 무기 또 방공 체계, 또 통신체계 이런 것들이 무력화된 것은 그 장비 자체의 결함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미국의 군사 작전, 내부적인 어떤 심리전, 더 엄밀한 베네수엘라 지역에 대한 매수 등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미국 작전의 승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지리적으로 공간적으로, 장비는 배치시켰지만 중국이 효과적으로 자기들의 장비나 무기들을 작동시키기는 아직은 부족하다. 실제로 그럴 여력이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어떤 그런 장비나 능력이 부족했다기보다는 미국의 실력과 작전이 월등했던 결과로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오늘 김현욱 소장님의 베네수엘라 사태와 우리 세계 질서에 대하여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중국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 사태 또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또 그린란드 이런 것에 있어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현재 정책이 과연 미국이 중국을 대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마두로 대통령 체포라든가 또는 그린란드 흡수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단순히 어떤 미국의 정책을 실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광의적으로는 중국 또는 러시아를 견제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현재 두 가지의 사안이 미국의 대중 정책과 연결되는 측면을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원 공급망의 탈중국화, 그다음에 미국의 중남미에 대한 중국 영향력 축출 그리고 세 번째 미국의 힘을 통한 평화의 실현 세 가지 측면으로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자원 공급망의 탈중국화 측면에서는, 그린란드와 베네수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거의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에너지와 핵심 광물 자원의 보고입니다. 중국은 2018년도에 발표한 북극 정책 백서를 통해서 중국은 우리는 북극 근접 국가라고 자처했습니다. 2018년에 그린란드의 희토류 광산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습니다. 트럼프의 그린란드 흡수 시도는 첨단 무기를 위한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희토류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시키고 미국 주도의 독점 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은 지난 21년에 걸쳐서 베네수엘라에 대해서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으면서 석유 자원을 확보해 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마두로를 제거하고 식민 정권을 세우려는 그런 시도는 바로 중국에 의한 큰 차원의 에너지 안보 라인을 끊고 미국이 글로벌 유가를 장악함으로써 중국의 수입 비용을 높여서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는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 그렇게

활용하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측면은 미국의 뒷마당에서 중국의 세력을 축출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베네수엘라에서의 군사작전은 중남미 국가들한테 중국이 주는 경제적 혜택이나 돈보다 미국의 힘이 더 가깝다, 즉, 주먹이 더 가깝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중국과 밀착했던 니카라과라든가 또 쿠바 등 다른 주변국 국가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경고를 주면서, 중남미 내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거점을 축출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북쪽의 그린란드, 남쪽의 베네수엘라에서 동시에 이렇게 중국을 밀어냄으로써 미국 본토를 중심으로 한 안보라인을 구축하고 중국의 활동 범위를, '너희 중국은 아시아 쪽에서 놀아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세 번째 이번 현재 베네수엘라 사태나 이런 것들이 미국의 대중정책에 관련이 있는 그런 측면은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즉, 전격적인 마두로 체포 작전은 중국에게도 아주 심리적인 타격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말만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대만 해역에 또는 핵심 시설에 대해서 어떠한 극단적인 작전도 수행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어떤 공포심, 심리적인 어떤 공포를 주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이 마두로가 미국에 있어서 끌려 나가는 모습은 중국과 중국의 보호 안에 있던, 또 중국이 안보를 약속했던 모든 국가에게 중국의 이러한 현재 실력이 실제 위기 상황에서는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모습을 전 세계에 보여준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의 모습은 내부적으로 그렇고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한마디로 완전히 체면을 구긴 겁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 두 사안이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대중 메시지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중국이 지난 20년 동안 구축했던 영향권도 미국의 군사력, 정보력 앞에서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줬고, 그린란드에는 미국이 다른 동맹들과 함께 제도, 투자, 군사적 수단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점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자신의 전략 자산으로 재규정하면서, 필요하면 동맹과 갈등을 겪더라도 물리적으로 이걸 되찾겠다는 의지를 미국이 적극적으로 보여준 시도입니다.

따라서 중국에게는 한국의 대미 전략이라든가 해외 투자, 군사력 정책 등을 새로 수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참고점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이 이번 미국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통해서 보여준 교훈은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도 마찬가지로, 그것을 중국에 있는 사자성

어로 요약하면 살계경후(殺鷄儆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로는 샤자징후라고 그러는데요. 살계경후 즉, 원숭이를 길들여야 하는데, 그에 강력한 효과를 주는 거죠. 원숭이 앞에서 닭을 죽여서 원숭이가 말을 알아듣도록 길들인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런 미국의 이번 작전은 가장 들어맞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닭에 해당하는 것은 베네수엘라이겠지만, 원숭이에 해당하는 것은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든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살계경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설마 우리가 원숭이에는 안 속하겠지요? 제가 조현규 박사님께 부탁드린 것은 중국 시각을 좀 듣고 싶었는데, 트럼프 시각에서 베네수엘라가 맞을 짓 했네, 중국도 맞을 짓을 했고 그래서 베네수엘라는 맞았고 또 지켜본 사람들 역시 정신 차려야 된다는 이런 식의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사자성어가 닭을 죽여서 원숭이에게 교육시키는 것이죠. 와 닿습니다.

신석호 박사님은 정치를 이론적으로 분석하면서 나지포럼을 자주 오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이론적 분석틀을 가지고 상황을 보실까 궁금합니다.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대결에서 현실주의가 이상주의를 무릎 꿇리는 그런 사건으로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어떤 이론적 틀을 가지고 보실지 궁금합니다. 신석호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 **신석호 이사** : 일단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은 많습니다. 예, 이미 현실주의의 세대 인지가 오래됐고 그래서 이런저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1989년도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이제 냉전이 끝나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나아가는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대학생들의 고민은 미국의 단극체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가장 큰 물음이었습니다. 그 답변은 아래 3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폴 케네디 교수가 미국이 유엔에서 초강력으로 올라갔으니까, 한동안 이제 또 위세를 떨치다가 다시 쇠퇴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또 치고 올라오겠지 라는 설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헌팅턴 교수의 문명 충돌로, 서방하고 아랍하고 종교적인 갈등으로 엄청 싸울 것이다 였습니다. 세 번째는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유주의가 잘못하면, 미국 주도의 세계로 영속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쭉 진행된 그 일련의 흐름도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엮으면, 폴 케네디 교수의 강대국의 흥망론

이 가장 적절성이 있는 분석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국의 상대적으로 힘의 쇠퇴 거기에서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들,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바라던 미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너무나 보편적이었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저는 미국이 마두로를 다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것은 미국이 스스로 아메리카는 다 내 것이야라고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기본적으로 남북 아메리카 지역은 다 자기 것이다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것이 바로 먼로독트린이였고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 가지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사실 쿠바도 들어갔고 니카라과 이런 데 많이 들어갔었는데 베네수엘라도 우리 땅 같이 생각하는 것이 이번에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즉, 내가 아메리카 대륙의 핵이라는 걸 천명한 것이고 동시에 다른 지역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너의 균형자로 난 빠질 거야 라는 겁니다. 한국, 일본은 중국을 막고 유럽은 러시아를 나가라는 지금 그런 흐름인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뭐, 재작년 작년 여기 이 자리에서 아메리카 패권국가로서 전 세계의 질서를 담당하던 미국 개입의 축소, 범위의 축소 그리고 그 역할들을 동맹국에게 넘기는 것이 더욱 확실해진 상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지에서 부작용도 우리가 느끼는 이질적인 것들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적나라한 힘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하여 말하는 게 주권 국가의 땅, 다른 나라의 주권 국가의 땅을 협상해서 계산을 하고, 사고자 합니다. 그런 것들은 2차 대전 이후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2차 대전 전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동시에 유엔을 중심으로 했던 그 전후의 규범과 질서를 많이 무너뜨린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베네수엘라 주권은 어디에 있지? 미국이 베를린 주변에 저렇게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것도 정당화 되는 건가? 중국이 대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것은 동맹체제의 이완입니다. 대가를 치르라는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동맹 이후, 동맹국으로서의 한국이나 일본, 대만 등이 어려운 길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닌데, 최근에 자꾸 세력균형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건데 세력균형 얘기를 하는데 그 18세기 유럽의 세력균형을 이해하고 나면 어떤 우려가 되냐면 당시에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에 부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들이 무엇이냐면, 적과 동지가 없습니다. 어제는 적이었는데, 오늘은 동지고 세력균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과정에 거짓말을 막 합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거짓말과 비밀 외교를 해서 엮어놓고 갑자기 동맹이 나오고 협상이 나오고 그런 부정적인 면 때문에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해 보자고 이제 유엔을 만들고 집단안보체제로 간 것입니다. 집단안보체제가 이제 와해되면서 다시 그러면 전의 세력균형 체제로 가는 터닝포인트인가 하는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다들 각자도생 이야기 많이 합니다. 자강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강이 이제 각자도생을 해야 해서 그런 것인데, 각자도생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이합집산입니다. 이합집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오르는 그 권력을,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막 기존의 동맹도 배신할 수 있고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그려지면서, 아직은 그게 실현됐다는 건 아닌데 그러한 아수라장의 세계로 가는 전조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백승주 회장** : 기대한 대로 이론적 틀을 가지고 토론해 주셨습니다. 결국 '다음 질서는 이합집산하고 각자도생이 결합해서 새로운 국제 질서를 만들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Q&A)

▣ **백승주 회장** : 청중 중에서 말씀하실 분을 제가 질문을 받아서 함께 이렇게 발제자, 토론자 분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주에 정리를 한 적이 있는데 나름대로 군사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5세대 전쟁 형태를 보여줍니다. 화력, 기동력, 정신적 의지 등이 하나의 전쟁에 1 ~ 4세대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였는데 이제는 고도의 군사적 AI에 기반한 또 여러 가지 군사작전의 능력이 전쟁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종결시키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트럼프식 5세대 전쟁이 시작됐다고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짧게 질문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질문자 1** : 마지막에 코멘트하신 동아닷컴 이사님 의견에 굉장히 동감합니다. 지금 트럼프의 배경은 기독교 근본주의고, 그곳은 기후 위기를 당연하다고 여기고 아메리카만 안전하다, 편안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 종말을 맞이할 때 그리스도가 온다는 그런 기독교 근본주의 종말만을 트럼프가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빨리 국제연맹과 유엔을

창설했던 미국으로 돌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러면 유엔을 강화시키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북한이 핵무장을 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종전하는 사태를 보고서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경기지역하고 서울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유엔사에서 빨리, 미군에서 일본에 있는 미군기지하고 한국의 기지에 강력한 전술핵 부대가 들어와야 한다고 봅니다.

▣ **백승주 회장** : 예, 감사합니다. 또 토론하실 분, 짧게 질문을 받겠습니다.

▣ **질문자** 2 : 첫 번째로 조현규 교수님한테 한번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중국 장유샤(張又俠)의 숙청에 대해서, 오늘 주제랑 크게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중국의 대만침공이 아닐까, 대만 공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각에는 장유샤의 축출이 앞으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스탠스를 어떻게 나갈 것으로 보이는지 좀 궁금합니다. 다른 분들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백승주 회장** : 사실 오늘은 제가 나지포럼을 주관하는 어쩌면 마지막 행사일지도 몰라서 발제자, 토론자 모두에게 많은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제, 토론하신 분들 대답할 부분 있으시면 발제자부터 돌아가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중국의 장유샤 사태가 대만 양안 관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입니다.

▣ **조현규 교수** : 근본적으로 이번 사태가 나타난 가장 큰 원인은 3가지입니다. 사실 장유샤는 시진핑 오랜 친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진핑을 가장 현재까지 끌어온 형님입니다. 정치 동지이고 항상 옳은 소리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즉, 시진핑이 지금까지 장유샤하고 같이 집권하면서 가장 이견이 났던 부분은 첫 번째 '장기 집권 하지 말라, 무력적으로 대만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말라. '입니다. 조언을 드린 거죠. 형의 입장에서도, 인생 선배로도, 또 친한 친구로도 조언을 한 것인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진핑이 자신의 어떤 그 장기 집권을 계속 획책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래서 듣기 좋은 노래도 한두 번이지 계속 짚고 넘어가면 어떻게 할까?' 입니다. 특히, 시진핑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 바로 턱 앞에서 수시로 충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귀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은 시진핑이 자기의 야심

을 계속 관철시키기 위해서 여지없이 단호한 또는 예상치 못한 그런 결심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시진핑은 벌써 올해가 14년 했습니다. 내년 15년이면 5년식 3년째 되고 세 번 정도로 했는데 이 장기 집권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인민들한테 보여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성과 중 하나가 '대만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시진핑은 좀 더 강력한 방법으로 침공이든 또는 봉쇄든 압박이든 간에 대만에 대한 어떤 그 성과를 인민한테 과시함으로써 자기의 4연임 또는 장기 집권에 대한 정당성과 자기의 업적을 홍보해야 하는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계속 밑에서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장유샤가 본보기로 좋지 않을까 생각했을 겁니다. 내년이 어떤 관건이 생기고 그것이 꼭 공격하라는 의미가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것을 정리해야 하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단행한 것이고 결국은 이런 조치의 결과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대만에 대한 어떤 압박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봐왔던 예외적인 그런 군사 활동 또는 대만 포위훈련 이런 것들이 좀 더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대만에 대한 압박도 강해지고 훈련도 강해지고, 대만에 대한 정책도 계속 더 발표할 겁니다.

지난주 이틀 전에도 대만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무판공실에서 바로 이어서 했지 않습니까? 무력 지향은 포기하지 않는다고 다시 재천명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점이 물론 장기 집권에 대한 반대도 있었지만 대만 문제 해결에 대한 이견이 서로 달랐던 점이 있겠죠. 그것을 제거하게 됨으로써 앞으로는 시진핑 주도로 대만에 대한 통일 방식 그것이 무력이든, 제재든 압박이든 봉쇄든 간에 방법은 다를 겁니다.

▣ **백승주 회장** : 질문자하고 답변자하고 짜고 질문하고 대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대답을 딱 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김현욱 소장님, 마무리를 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 **김현욱 소장** : 대만 사태와 관련해서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정부의 노-태평양 지역에 대한 전략은 방어적 전략 그리고 중국과의 세력균형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고 또 중국과는 충돌하지 않겠다는 것, 하지만 항상 중국과 커뮤니케이션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하는 행동을 보면 맨날 뒤로 빠지는, 맨날 겁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까불면 또 찾아서 죽인다는 겁니다. 가서 막 때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약소국에게 그러는 것이고, 강대국에게는 이제 지금 러시아 같은 국가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하고 딜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진핑이 대만에 대해서 상당히 억지로 대만을 공격하는 그런 무리수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만을 공격했다가 그게 실패하면 그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자기 한테 다 화살표가 오기 때문에 대만에 대한 정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모한 군사작전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진짜 중국이 대만을 공격했을 때 트럼프가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중국에 대해서 군사력을,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과 이러한 동맹국들의 군사력을 같이 묶어서 중국하고 맞서서 군사적으로 싸울 것인가? 과연 트럼프가 그럴 것인가? 많은 국가가 트럼프가 들어와서 우려하고 자강으로 가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과 동맹국에 대해서 안보적인 개런티를 안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백승주 회장** : 여러분, 오랜 시간 나지포럼에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그 말이 그토록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닭을 죽여서 원숭이를 겁준다는 그 사자성어가 기억에 남을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부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트럼프 시대를 적응하는 팀이 있어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포스트 트럼프, 트럼프 이후에 질서에 대비해야 합니다.

11월 선거를 앞두고 미국의 국내 공화당과 민주당이 6% 큰 격차를 보이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30% 안팎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시대에 대응해서 자강 외교를 하고, 또 트럼프 이후에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는 그에 대비하여 국제 질서에 노력을 같이해가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시간 토론에 참가해 주신 분, 또 같이 자리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제13회 KWO 나지포럼
베네수엘라 상황과 2026 신국제질서 전망

발 행 인 김낙진
발 행 일 2026년 5월 20일
발 행 처 전쟁기념사업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 | 02. 709. 3174
편집위원장 서원주
편 집 위 원 서진아, 이재헌, 백연주, 이정선, 강지형, 황다혜, 황은하
제 작 도서출판 온샘

* 이 자료집의 저작권은 전쟁기념관에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원고의 내용은 집필자의 의견이며 전쟁기념관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The War Memorial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전쟁기념사업회

KWO Korea War-memorial Organization